

사회

# 오리 100만마리 집단 폐사

## 전남서 3개월 새 전체 30% ... 세균 감염 추정

### 당국 "시는 아니다" ... 대책마련 시급

최근 전남지역 농가에서 사육 중인 오리가 살모넬라, 대장균 등 세균에 감염돼 집단 폐사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이번 폐사의 원인이 AI는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안도하는 한편, 추가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9일 전남도와 농가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지역에서 사육 중인 오리 629만 마리 중 20~40%인 100여만 마리가 집단 폐사해

농가에서 매몰처리했다. 전남지역 오리 사육 수는 전국 총 오리 사육 수 1273만 마리의 절반(49.4%)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3개월 새 나주시 영암 지역에서만만 오리 40%가량이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

실제 K(47·나주시 동강면)씨 농가에서는 지난 15일 오리 2만5000마리를 입식했으나 불과 며칠만에 무려 1만1000마리가 죽었다.

보건당국이 나주 등 전남지역 15곳

오리 사육농가 J모(53·나주시 공산면)씨는 "이번 집단 폐사의 원인이 AI 등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며 "상당수 농가들이 파산 위기에 내몰려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관계자는 "산란율과 부화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육용 오리의 집단 폐사율이 30%를 육박했으나 최근 들어 폐사가 줄고 있다"면서 "폐사원인이 규명된 만큼 체계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여성장애인 성폭력 추방하자”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광주지부 광주여성장애인 연대 회원들이 29일 전남대학교 후문 앞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추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스키장 간 당직의사

## 전남대병원 응급실, 환자에 “수술 중” 거짓말 이마 찢어진 2세 아이 6시간 기다려 봉합수술

대학병원 응급실에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이마를 다친 유아 환자가 무려 6시간을 기다린 끝에 봉합수술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특히 이 환자가 장시간 응급실에 대기하면서 소독 등 기본적인 응급 처치도 받지 못하는 등 대학병원의 응급의료 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박모(35·해남군)씨에 따르면 지난 27일 두살배기 아들이 안방 벽 모서리에 부딪히는 바람에 이마가 찢어져 광주 전남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고 시골에서 대형병원까지 찾아 온 것이었다.

그러나 박씨가 오후 5시20분께 전남대 병원응급실에 도착하자, 응급실 직원은 원무과 접수 후 2시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잠시 후 응급실 직원은 성형외과 당직의사가 응급 수술 중이므로 2시간을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환자들이 물리는 주말이 다른 병원 응급실 사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대기실에서 우는 아들을 달래며 밤 9시가 넘도록 당직 의사를 기

다렸다.

이후에도 응급실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박씨는 다급한 마음에 당직 의사가 수술중이라는 방을 찾아갔으나, 정작 수술실은 텅 비어 있었다.

화가 난 박씨가 응급실 직원들을 추궁하자 “사실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단체로 스키장에 갔다”고 그제야 실토했다.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병원 측의 연락을 받은 성형외과 의사가 응급실에 돌아왔고 밤 12시께 수술을 마쳤다.

박씨가 이같은 병원의 행태에 대해 따지자 당직 성형외과 의사는 “자리 비우는 것을 응급실에 말하고 갔다”고 책임을 떠넘겼고, 응급실은 “그런 말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박씨는 “당직 의사가 없으면서도 거짓말로 환자를 속이고 책임마저 회피하는 대학병원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직원들의 말에 속아 환자가 6시간 동안이나 소독 등의 기본적인 응급조치도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원룸 여성들 성폭행 서부경찰, 30대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원룸에 몰래 들어가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김모(30)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빌라 1층 이모(여·23)씨의 집에서 이씨와 이씨의 직장동료(여·23)를 흉기로 위협한 뒤 차려보 성폭행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는 이씨 등을 성폭행한 뒤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먹고, 잠까지 자는 등 범행현장에서 6시간 가량 머무르는 대범함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미니홈피에 휴대전화 번호는 금물

#### 고교생이 여성들에 영상통화 걸어 음란행위

휴대전화 번호를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로 사용하는 여성들이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서부경찰은 29일 싸이월드 미니홈피 주소에 '010 ××××××××'라고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한 최모(17·고교 1년)군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4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김모(18·고교 2년)양에게 휴대폰 영상통화를 건 뒤 자신의 성기를 비추고,

성적인 농담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조사 결과 최군은 집에서 컴퓨터로 싸이월드를 하던 중 우연히 김양의 미니홈피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발견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9일에도 여대생(24)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30분 간 음란행위를 한 김모(19·고교 3년)군이 최군과 같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김군 역시 최군처럼 피해 여대생의 미니홈피 주소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보고, '뭇님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모텔 여주인에 호감' 50·60대 몸싸움

○평소 자신의 집 인근 모텔 여주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60대 여주인과 가깝게 지내던 이 모텔 50대 장기 투숙객과 서로 목살잡이를 해 나란히 경찰서 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62)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15분 광주시 서구 관촌동 한 모텔 앞에서 이 모텔에 장기투숙중이던 홍모(57)씨와 서로 밀어 넘어뜨리고, 목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모텔 여주인이 자신이 아닌 투숙객 이씨와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껴 '뿔'의 사이는 불륜이라는 소문을 내고 다니다가 이를 항의하던 홍씨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두 사람이 너무 다정해 보아서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 공사장·빙판길 잇단 사고

#### 영암·여수·순천 3명 숨져

29일 오후 2시25분께 영암군 삼호읍 모 합관 제작회사에서 작업반장인 정모(68)씨가 지게차에서 떨어진 합판 더미에 깔려 숨졌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10분께 여수시 묘도동 방과제 공사현장에서 고모(27)씨가 지게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또 이날 오전 7시40분께 순천시 주암면 관천리 해운을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이모(54)씨가 운전하는 겔라퍼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안모(49)씨의 4.5t 화물차랑 부딪혀 이씨가 숨졌다.

앞서 새벽 5시 35분께 화순군 춘양면 용두리 앞 도로에서 포터 트럭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옆 차선에서 달리던 이스타나 승합차와 충돌, 이스타나 운전자 임모(여·60)씨 등 2명이 다쳤다. /중부취재본부=박성태himhag@

### 완도 김양식장에 화물선 진입 4억 피해

#### 중국인 항해사 입건

완도해양경찰은 29일 화물선에 물건을 싣고 항해하던 중 바다에 설치된 김 양식장을 망가뜨린 중국인 항해사 L(30)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1967급 벨리츠 선적 화물선 H호의 항해사인 L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30분께 완도군 소안도 북동쪽 약 2.5km 해상에서 노모(47·완도군 소안면)씨 등 15명 소유

의 김 양식장 297ha 중 일부를 손괴해 4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H호는 이날 오후 6시30분께 완도군 노화도 삼양진항에서 남서 295도 가량을 싣고 대만으로 항해하던 중 당직 항해사 L씨의 항해 부주의로 노씨 등의 김 양식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선사 측으로부터 피해보상을 약속받고 H호와 L씨 등을 돌려보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매값' 한 대에 100만원

## SK家 2세, 야구방망이 폭행 후 2천만원 건네

### 경찰 수사 나서

SK가의 2세가 고승승계 문제로 마찰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때리고서 '매값'이라며 돈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물류업체 M&M의 전 대표인 최철원(41)씨는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모(52)씨를 야구 방망이로 10여 차례 구타했다고 유씨가 주장했다.

유씨에 따르면 최씨는 탱크로리 차량 매각 문제로 사무실을 찾은

유씨를 M&M 임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알뜰미늄 야구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매값'이라며 2천만원을 건넸다. 이어 최씨는 5000만원에 탱크로리를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게 했다고 유씨가 말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인 유씨는 자신이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던 회사를 합병한 M&M이 고승승계를 거부하자 SK 본사 앞 등에서 울며 1월 차량시위를 벌였고, SK 회장과 면담도 요구한 바 있다.

'매값 폭행'이 알려지면서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최씨의 구속을 요구하는 이슈 청원이 올

랐고, 이날 오전까지 3400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서울지방경찰청 폭력계는 이날 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철준 변호사는 "돈을 주면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형사합의금을 주는 문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M&M 관계자는 "(최 사장이) 출장을 떠나 다음주 쯤에야 돌아올 예정이다"며 유씨의 폭행 피해 주장에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김영과 함께 한발앞서 시작하자**

1학년부터 시작하자! 수도권 주요대학 편입합격생 설문결과 대부분 10개월~12개월 간 편입공부 개강 12월 20일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  
편입영어, 편입수학, TEPS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